

## 한국문화에서 청소년이란 무엇인가?\*

최 상 진<sup>†</sup>      김 양 하      황 인 숙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본 고에서는 청소년이나 청소년기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출발하여 기성세대의 청소년관에 대한 부정적 청소년관과 발달심리학의 심리주의적 신화와 부정적 청소년관을 개관하였다. 더불어 활동-환경중심적 입장에서 청소년을 이해해야함을 제안하고, 현대 한국사회에 있어서의 청소년의 가치를 논하였으며, 오늘의 청소년을 어떻게 조망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논하였다.

주요어 : 청소년, 한국문화, 발달심리학, 심리주의, 활동-환경중심적 관점

---

\* '이 논문은 2003년도 중앙대학교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된 것임'

† 교신저자 : 최상진, (156-756)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Email : choi@cau.ac.kr

본 논문은 한국 문화에서 '청소년'이라 불리는 대상의 (사회)심리적 특성이나 인간의 발달과정에서 '청소년기'로 분류되는 시기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출발하였다. 다음으로,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을 바라보는 기성세대의 부정적 청소년관과 심리학 내의 발달심리학 분야에서의 '심리주의적 신화'와 부정적 청소년관을 전반적으로 개관하였다. 또한 본 연구자들은 청소년들의 활동 및 청소년들이 처해있는 환경 중심적 관점에서 청소년을 보고, 이해해야함을 제안하였고, 현대 한국사회에 있어서의 일상적 삶과 가치의 변증법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전통적 가치에서 현대적 가치로의 전환에 따른 청소년의 가치를 논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오늘의 청소년을 어떻게 조망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최근 청소년에 대한 화두는 "청소년 참여"이다. 이러한 화제는 이미 UN, UNESCO,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등 다양한 국제기구들을 중심으로 각종 국제회의에서 거론되는 주제이다(김옥순 외, 2003). 따라서 청소년이라는 대상을 수동적인 대상에서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한 구성원으로서의 의미를 둔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대적 청소년관은 UN아동권리 헌장(아동권리 협약, 1989)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인권과 존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존재,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율성의 대상으로 인정하자는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즉 청소년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며, 이에 따른 사회적 역할과 지위 변화를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국가적 정책은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가고자 하는 무늬를 만들고 있는 것이며, 청소년에 대해 좀더 밝고 건전한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할 뿐이다. 왜냐하면 현재 대부분의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행위나

사고는 성인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사회적 지위가 한국사회(기성세대에 의해)에서 허용되고 있는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실에서 성인들은 청소년들의 자율성을 청소년들 스스로에게 부여하지 못하고 있다. 성인들의 잣대에 맞추어진 틀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에 따라 이 둘 간의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이는 청소년에 대한 시각이 여전히 성인의 눈높이에 맞추어져 있어 청소년이라는 대상을 객관적 시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을, 사회구조와 환경변화로 인한 생활양식이나 가치관이 청소년과 부모세대(기성세대)간의 의식차이가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이로 인해 청소년과 기성세대간의 인식차이의 문제는 가정에서부터 학교장면 등 어디서나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청소년 자신들의 정체관과 어른의 청소년 정체관 간의 평행적 간극괴리를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어, 어른들이 청소년들의 행동을 보고 "요즘 애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와 같은 청소년을 전혀 다른 대상으로 보는 '몬스터 괴물관'과 청소년 입장의 "우리문제는 우리가 더 잘 알아요, 우리들을 부정적 시각으로 보지 마세요"와 같은 청소년 자신들의 자율적 존재관이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최상진, 2003).

또한 젊은 기성세대들이 이끄는 '대안학교'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합의해 보려는 시도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나하나 모이기 시작한 대안학교들은 "도시속 10대들이 꿈을 찾는다"라는 취지아래 대안학교 박람회를 가져 성공사례를 발표하며, 학생과 교사, 부모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방황하는 도시의 10대들에게 인생의 새로운 항로를 찾는 방법을 알려주고자 서울시 대안교육센터 등에서는 많은 노력을 보이고 있다(문화일보, 2003. 11. 7., '대안학교' 박람회 열린다). 이러한 노력은 좀더 청소년들의

자율성과 인성을 강조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획일적인 교육을 벗어나 학문과 실제 생활로의 다양한 접근을 하고 있어 청소년 발달에 긍정적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시각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시대가 변화하고 그 속의 물질적 환경이 변화되면서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도 점차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청소년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체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변화와 현실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청소년을 이해하고 관심을 가지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다. 청소년기는 삶의 과정에서 새로운 도전을 받는 중요한 전회기로 심리사회적 혼란의 시기(곽금주, 김의철, 박영신, 1998, p. 787)로서 청소년들의 비행문제, 우울과 같은 부정응적인 부정적인 행위 등의 특성에 대한 관심과 우리의 미래와 희망으로 대표되는 청소년을 좀 더 발전적으로 성장하기 바라는 기대 때문에 가지는 관심이기도 하다. 이는 기성세대나 사회에서 가지는 관심이며, 이러한 관심이 청소년 당사자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는 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하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청소년은 무엇인지에 대해 재구성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기성세대와 청소년간의 갈등을 줄이고 함께 나아가갈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청소년기를 구분하는 방식은 일정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를 구분하는데는 연령이라는 인구학적 지표와 더불어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 위치-역할적, 역사문화-제도적, 교육적, 법률적 차원의 발달 및 성숙 지표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될 뿐 아니라, 구분의 목적에 따라 그 범위와 구분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청소년이란 말을 사용하는 맥락에서 청소년기를 구획해 보면 학제를 기준

으로 하여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청소년이라 부른다. 발달심리학 분야에서 청소년기를 구획하는 연령 범위를 볼 때도 보통 12~13세부터 19~20세로 청소년기를 잡고 있는 바 학제에 따른 청소년 구획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이춘재 외, 1988; 정옥분, 1998, p. 34; Durkin, 1995, p. 506; Dusek, 1987, pp. 4-7).

우리 사회에서 통념적으로 청소년은 아동과 어른의 사이에 낀 연령 세대로서, 청소년이란 말을 사용하고 청소년기를 아동과 구분하여 별도로 설정하게 된 시기는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조영승, 1997, pp. 7-9; 함중훈, 1992, p. 27; Dusek, 1987, p. 7). 청소년이란 말과 청소년기가 별도로 생겨나게 된 배경에는 학제의 연장으로 인해 아동과 청소년기를 포함하는 즉 아동-청소년기의 기간이 길어지고, 이와 더불어 취업과 경제적 독립 및 결혼의 시기가 늦추어짐으로써 전통적 의미의 아동과 어른간에 새로운 중간 세대를 설정할 필요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청소년이나 청소년기는 아동과 어른의 '가운데에 낀', 그리고 그 중간에서 '연결시켜주는' '사이 및 전환기 세대'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발달심리학에서는 이를 전환기(transition period)라고 부르기도 한다(Dusek, 1987, p. 8). 이러한 사이 및 전환기 세대는 아동이나 어른 세대와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을 지닌다.

### 한국 사회에서 기성세대(성인)들이 구성한 부정적 청소년관

먼저 아동이나 어른이라 말할 때에는 그 연령기 및 이에 속하는 집단에 대해 사회적으로 합의되고 제도화된 역할과 기능이 비교적 명백하게 구분되고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청소년기는

‘아동 대 어른’의 경우와는 달리 그 기능과 역할은 물론 심리적 발달 특성 및 사회적 성숙성면에서 ‘청소년은 어때, 어때하다’든가, ‘청소년은 어때, 어때해야한다’ 등에 대해 사회적으로 합의되고 제도적으로 안정된 형태의 개념이나 규정이 명백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어른들은 어른의 잣대로 어른의 시각에서 청소년을 규정하고,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잣대로 청소년들의 시각에서 자신들을 규정하는 이원적(二元的) 규정방식이 갈등과 타협의 형태로 공존하는 불안정한 균형을 보이는 것이 사회적 청소년관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다(최상진, 2003). 이는 기실 한국사회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며, 이러한 편리대로, 임의대로의 가치관은 청소년의 심리적·신체적 특성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자율성이 성인들에게 비판을 받기 쉽고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어른들은 청소년들이 어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도 청소년을 미숙한 존재로 규정하며, 미숙하다는 점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고 가르쳐야 할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여기서 어른들이 청소년을 바라보고 규정하는 시각은 ‘오늘의, 바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청소년의 언행과 생각을 자신이 설정한 청소년에 대한 고정관념을 배제한 상태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이에 근거하여 청소년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청소년에 대해 사회적으로 구성한 청소년에 대한 통념 및 고정관념을 그대로 대입시켜 청소년의 언행을 해석하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이춘재 외, 1988, pp. 6-9).

이러한 어른들의 사회적 통념은 자신이 가졌던 생각이 맞다는 식으로 즉 예언자성(豫言自成) 방식대로 자신의 통념에 맞는 청소년의 언행 단서를 찾아내거나 이에 대한 통념합치적 해석방

식을 적용함으로써 자신의 통념을 스스로 확인하는 논리적 모순을 지닌다. 또한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는 것처럼 오늘의 어른들은 개구리 즉 어른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과거 즉 올챙이적인 청소년기를 회고적으로 조망한다는 점에서 불가피하게 자신의 과거를 ‘미숙하고 부족한 과거’로 조망하고, 더 나아가 자신이 살던 청소년기때의 역사·사회적 환경을 오늘의 청소년이 처한 환경과 동치시키는 오류가 어른들의 청소년관에 내재하고 있다. 즉 어른들은 변화된 사회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들이 살아온 청소년기를, 그것도 지금 어른이 된 상태에서 자신의 청소년기에 대한 회고적 재구성을 통해 설정한 청소년관을 그대로 오늘의 청소년에게 요구하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을 현재로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어른의 청소년관은 현실과 괴리된,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과 유리된 ‘어른들의 잘못된 청소년관으로 거부되고 있다. 특히 오늘의 청소년들은 서구의 주체적 청소년관에 익숙해지면서 성인들과의 관계나 대사회적 행동에서 자신들이 인격적이며 독립적인 존재로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사회에서도 이를 수용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과 궤를 같이해서 오늘의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집단 identity와 personality를 주체적으로 구성하고 이를 여러 가지 상징 함축적 활동을 통해 외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자신들의 세력을 자기 확인하고 세력화(empowerment)하는<sup>1)</sup> 일에 암묵적으로 동참

1) 기존의 교육제도에 대한 학생들의 혐오와 거부의 몸짓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조혜정, 1996). 비행, 폭주족, 가출과 같은 형태의 표출(조혜정, 1996)에서 요즘에는 “노사모”, “월드컵 응원” 과 같은 사회참여 집단의 형태로 발전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사회참여는 청소년들의 정체성을 스스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가시적인 형태로 부상하는 것이 청소년 하위 문화이다. X세대니 N세대니 하는 것과 같은 배타적 정체성을 갖는 세대별 하위 문화가 있다는 것은 그 집단 또는 사회 구성원들의 정체성과 주체성은 물론 독립성을 스스로 확인하는데 이념적 준거가 된다(최상진, 1996, 1999).

이러한 청소년의 독립선언성 정체 드러내기에 대해 어른들은 청소년들에 대한 통제가 어렵게 되고 자신들의 권위가 위협받게 되었다는 자의식을 갖게 되며, 이에 대한 방어적 공격성(defensive aggression)을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실제로 오늘날의 어른들은 청소년이란 말만 들어도 자동적으로 '건방진 아이들', '버릇없는 아이들', '이해 못할 이상한 아이들', '문제가 많은 아이들', '참을성 없는 아이들' 이라는 부정적 반응을 나타내 보인다. 또한 "애들은", "어린 것들이"와 같은 비하적 언어를 사용한다. 청소년에 대한 연구자들은 청소년의 가능성이나 긍정적 측면보다 부정적 측면의 연구, 예컨대, 청소년 문제, 청소년 비행, 청소년 부적응 등과 같은 문제확인적 연구(2)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어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청소년관을 확인하려는 심리에서 동인된 연구라고 볼 수 있다.

어른의 입장에서는 자신들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들이 스스로 보호를 거부하는 격으로

로 드러내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2) 가정환경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신재현, 1997), 가족관계와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김선미, 1996), 매스미디어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안광식, 1994), 가정교육이 청소년범죄에 미치는 영향(황성환, 법무연구, 1988), 가정 폭력가정 청소년의 가족폭력 경험에 관한 연구(김경희, 1996), 가정형태가 청소년범죄에 미치는 영향(한영춘, 단국대론문집, 1977 등).

청소년들이 행동한다는 점에서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불만속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에 대한 어른의 보호는 간섭이나 지나친 금지 또는 억압으로 청소년에게 받아들여진다. 그렇다고 청소년들이 어른들의 청소년관이나 청소년 보호활동을 부정하거나, 이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없는 것이 청소년이 처한 사회적 위치이다. 이미 기성세대인 성인들은 청소년을 보호하고 육성한다는 명분 아래 청소년의 사회적 위치 및 지위와 청소년의 활동을 성인들이 생각하고 원하는 바대로 청소년을 묶어 놓는 방식으로 청소년 관련 사회제도와 관행을 구성하고 있다. 이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아직도 청소년들은 어른들의 손안에 있는 셈이다.

### 발달심리학의 심리주의적 신화와 부정적 청소년관

청소년들이 미숙하고, 어른들의 보호와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성인 중심적 사회통념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하는데 기여한 것이 발달심리적 청소년관이다. 발달심리학 교과서에서 청소년들은 그 심리적 성숙성 면에서 미숙한 것으로 일관성 있게 지적하고 있다(이춘재 외, 1988, pp. 101-106; 정옥분, 1998; pp. 155-156; Dusek, 1987, p. 369). 예컨대, '전환기적 시기', '질풍과 노도의 시기', '자제력의 결여', '정서적 불안정', '신중성의 부족', '신체적 발달을 따라가지 못하는 정신적 미성숙', '충동적으로 행동함', '사리판단 부족' 등 어른의 머리속에 구성된 청소년은 부정적 측면이 일방적으로 압도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기는 신체적으로 성인이 되기 위한 변화의 단계이고, 심리적·사회적으로 갈등이 극심하고 적응상의 어려움으로 정신적 문제를 발생하는 위협

의 시기라고 보는 학자들도 많다(도복늬, 1999).

Piaget의 인지발달이론이나 Kohlberg의 도덕성 발달 이론들은 청소년들이 성인들에 비해 발달적으로 미숙한 상태의 존재라는 것과 더불어, 이러한 미숙성은 시대나 사회환경과는 관계없이 발달의 과정에서 청소년(기)이기 때문에 내재적(intrinsic)으로 갖게 되는 심리적인 특성으로 규정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즉, 청소년기가 되면 시대나 환경에 관계없이 그 단계의 누구나가 이러한 특성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달관을 '심리주의적 발달관'이라고 칭해볼 때, 여기서는 앞에서 언급된 부정적 측면의 행동의 원인을 청소년기가 갖는 발달적 심리특성으로 귀속시키는 입장을 취한다. 그러나, 이러한 심리주의적 청소년 발달관은 일종의 숙명성 발달관으로 청소년들이 처한 사회-문화-제도적 환경의 맥락을 청소년의 발달과 관련하여 배제시키고 있다는 문제점을 갖는다. 심리주의적 발달관의 입장에서는 문화권에 따라 어른이 되는 시기가 다르며,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과 시대에 따라서도 청소년기를 구분하는 시기가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시대적, 문화적, 상황맥락에 따라 청소년의 문화적 신념과 가치관, 사회화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청소년들에게 그 사회가 요구하는 적합한 사회적 스크립트(script)를 전수하게 된다. 맥락주의적인 관점에서, Markus와 Kitayama(1991)는 자율적인 자기를 중시하는 미국인의 관점과 남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남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상호의존적인 자기를 강조하는 일본인의 관점을 대비시킨 바 있다. '독립성'이라는 심리적 특성에 있어서 미국과 한국의 청소년을 비교 추론해보면, 미국에 비해 한국의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독립성이 약하며 의존성이 높다

고 생각 할 수 있다. 청소년기를 미숙한 존재로 보는 심리주의적 발달관의 입장에서는 독립성이 높은 미국의 청소년들은 적어도 독립성이라는 측면을 기준으로 할 때는 한국의 성인기준에 근접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한국이라는 문화의 가치관이 그 문화에 속한 청소년에게 부여되고 기대된 적합한 사회적 인지를 이끌어간다는 입장에서 재해석해야 한다.

발달심리학에서 청소년기를 모라토리엄(moratorium)의 시기로 규정하는 바, 이러한 모라토리엄 현상은 청소년기의 내재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에서 청소년의 직업참여 및 사회적 역할 수행을 보류시킨 데서 비롯된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더욱 합당할 것이다. 또한 심리주의적 청소년 관에 따르면, 청소년이 어른에 대해, 사회, 문화, 체제에 대해 부정적 태도와 행동을 보일 때 이를 설명하는 방식에서 Freud의 욕구불만이나 Erickson의 청소년기 위기극복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청소년의 반항심리'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숙명론적 설명에 귀결시키는 취약성을 안고 있다.

한편, 역사적 시각에서 심리주의적 청소년관은 조선시대의 청소년들을 오늘의 청소년들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조선시대의 청소년들이 훨씬 덜 반항적이고 사회 및 성인의 기대에 대해 순응적인 행동을 해보였다면, 심리주의적 청소년관은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의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을 보는 시각에 있어서도 문화사에 따라 당대의 공유된 경험을 통해 형성된 가치관, 신념 등과 같은 인지적인 틀로 청소년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하다.

심리주의적 발달관의 입장에서 보면, 문화권에 따라 어른이 되는 시기가 다르며, 문화권에 따라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대에 따라 청소년기와 성인기를 구분하는 시기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문제가 있다. 독립성이라는 심리적 특성에서 미국과 한국의 청소년을 비교해보면 한국의 청소년은 미국의 청소년에 비해 독립성이 약하며, 동시에 의존성은 더욱 높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기준으로 미국의 청소년을 평가할 때 미국의 청소년은 적어도 독립성의 면에서는 한국의 성인 기준에 접근할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미국의 청소년은 한국의 기준에서 어른이 된다. 또한 청소년기를 모라토리엄의 시기로 발달심리학에서 규정하는 바, 이러한 모라토리엄은 청소년기가 갖는 내재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에서 청소년의 직업참여 및 사회적 역할 수행을 보류시킨 데서 비롯된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더욱 합당할 것이다. 또한 심리주의적 청소년관에 따르면, 청소년이 사회에 대해, 어른에 대해, 문화에 대해, 체제에 대해 부정적 태도와 행동을 해 보일 때 이를 설명하는 방식에서 '청소년의 반항심리'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숙명론적 설명에 귀결되는 취약성을 안게 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조선시기의 청소년은 오늘의 청소년과 비교해 훨씬 덜 반항적인 행동을 즉 사회 및 성인 기대 순응적인 행동을 해보였다면 심리주의적 청소년관에서는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활동-환경중심적 입장에서의 청소년 이해의 필요성

청소년의 심리를 발달의 과정에 따라 그 단계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심리특성으로

보는 심리주의적 청소년 발달관에 반해, 활동-환경중심적 청소년관에서는 청소년의 심리가 기형성된 문화-역사-사회적 제도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의 삶 활동을 통해 발생되고 구성된다는 입장을 취한다(최상진, 2000; 최상진, 한규석, 1998; Ratner, 1997; Vygotsky, 1978). 여기서 삶 활동이라 함은 의도성과 지향성 또는 목적성을 가진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활동은 일정한 문화-제도적 틀의 형태로 기조직된 환경 맥락에서 상호적 길항(拮抗)과 변증법적 조정을 통해 동화(同化)와 조정(調定)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Leontiev, 1981; Wertsch, 1985). 이러한 활동과 활동의 결과와 관련하여 수반하는 행위자의 경험과 활동-유관적 해석 및 구성적 귀결(construal)은 한편으로는, 행위자의 심리 내적 정서 및 인지 과정을 통해 성격, 태도, 가치관 또는 세사관(世事觀)과 같은 심리구성물로 조직되는 소재로 작용하기도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동일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후발적 활동에 대한 선조직인자(先組織因子)로 투입되어 새로운 형태나 성격의 활동을 구성하는데 기여하기도 한다.

여기서 활동이 일어나는 맥락 상황인 문화-제도적 틀과 그러한 틀 속에서 일어나는 활동은 변증법적 관계에서 상호교역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러나 청소년의 활동은 그 세력이 어른에 비해 크지 않으며, 청소년 활동의 장이 되는 사회환경이 어른의 의도성에 의해 제도적으로 조성된 환경이란 점에서 청소년이 사회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비록 사회제도가 자신들의 주체성이나 인격을 인정하지 않거나 자신들의 활동을 억압하는 형태로 구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회환경을 변화시키는 데 대해서는 스스로 무력하다고 믿는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대한 청소년들의 대처 양식

은 순응이나 아니면 반항성 저항으로 나타나게 된다.

오늘날의 청소년 문화가 전통적 사회제도와 사회의식에 대한 '거부문화' 및 '대안문화'의 형태를 띠는 것은 바로 자신들을 부정하는 기성 문화에 대한 반발적 성격의 반응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오늘날 한국 청소년의 심리와 청소년의 문제행동 등은 청소년의 욕구와 의도성(intentionality)이 발현되는 형태로서의 청소년의 삶 활동과 이러한 활동이 일어나는 사회-제도적 맥락이 어떤 형태로 청소년의 활동과 활동-유관적 경험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청소년에게 어떠한 활동-유관적 해석 및 구성적 귀결을 부수(附隨)시키고, 동시에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심리적 특성이 수반(隨伴)되는가를 활동-환경 상호작용적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청소년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환경맥락은 '위험스러운' '불완전한' 청소년이라는 심리주의적 전제하에 짜여진 '보호-억압' 주의적 '금지' 맥락이다. '무엇을 해도 좋다' 보다는 '이러이러한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식의 십계명 형태의 훈육 이데올로기가 청소년 보호법을 비롯한 청소년 관련 제도의 기본 원리로 내장되어 있다. 90년대 말, 청소년의 각종 일탈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청소년 관련 성범죄와 음란물의 폭발적 증가가 청소년들의 정서를 해친다는 여론이 일자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의 정부산하 기관이 신설되고 청소년 보호법 등이 개정되어 시행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정책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권리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청소년을 불완전하고 미성숙한 존재로 규정하고 그들의 삶 활동을 차단하고 통제하는 정책적 목적의 일면을 노출하고 있다.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하고 나아가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식의 청소년의 인권 개념이나 청소년의 인격 존중 개념이 비록 부분적으로는 법이나 제도적 규정 속에 선언적인 형태로 명시되거나 반영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소년의 삶 활동에 직접 관련된 제도-환경 상황에서는 이러한 정신이 실천적이며 조직화된 형태로 반영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오늘날의 한국 청소년 정책이나 청소년 지도 활동 속에 그 주체가 되는 청소년의 실체는 형상적으로만 존재할 뿐 실물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청소년은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어도 '긴절(緊切)한 삶을 실천적으로 살아가는 청소년의 실존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른들이 구성한 청소년은 있어도 청소년들이 규정한 '나'와 '우리 청소년'들이 없다. 이제 우리의 청소년을, 그리고 오늘의 청소년을 실물대로 그리고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에 대한 어른들의 어른 중심적 그리고 구세대적 고정관념을 과감히 버릴 뿐 아니라, 청소년을 있는 그대로 보고 읽기에 앞서 청소년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식의 앞뒤가 뒤바뀐 어른들의 성급한 청소년 판단 양식은 말소되어야 한다. 바로 이러한 잘못된 청소년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실천적 삶을 그들이 경험하고 이해하는 방식대로 관찰하며 기술하는 일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활동-환경중심적 청소년 이해 접근을 제안한다. 이 접근의 기본 성격은 다음과 같다. 즉, 청소년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활동이 어떤 동기와 목적 또는 기능과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 일어나며, 이러한 활동이 일어나는 사회-환경적 맥락이 어떤 형태로 청소년의 활동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귀추되는 청소년의 경험을 어떻게 구조하게 되는가에 대한 분석과 더



표 1. 심리주의적 발달관과 환경-활동중심적 발달관 비교

	심리주의적 발달관	환경-활동중심적 발달관
이론가	Piaget, Kohlberg 등	Vygotsky 등
기본전제	개체발생적, 개인 내적 발달, 결정론적	계통발생적, 사회적 발달, 변증법적
발달관	청소년의 태도와 행동을 설명하는 방식에서 숙명론적 발달관 청소년의 심리를 발달의 과정에 따라 그 단계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심리특성으로 보는 관점	환경맥락에서의 경험과 활동-유관적 구성적 발달관 청소년의 심리가 기형성된 문화-역사-사회적 제도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 활동을 통해 발생되고 구성된다는 입장
인지발달	수동적 동화와 조절을 통한 객관성 증가	능동적, 개인의 인지발달은 질적으로 다르다. 환경과의 상호작용

불어 이러한 경험이 청소년들의 인성을 포함한 제반 심리적 구성에 어떻게 역투입(feedback)되고 차후의 활동에 어떻게 선투입(feedforward)되어 활동의 성격과 방향을 재구성하게 되는가를 실물성 생활현장 중심으로 연구하는 접근 방식이다(표 1 참조).

### 현대인 일상적 삶을 중심으로 한 의식구조 변화

사회구조와 환경변화 속에서 우리 청소년의 모습을 가치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동안 우리의 전통의식과 윤리도덕은 사라진 듯 하면서도 우리의 의식속에 잠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환경의 변화로 인해 우리들의 가치는 일상생활이 변화하면서 가치도 변화한다. 우리들의 일상생활은 10년 전과 다르며 불과 1년 전과도 다르다는 것을 의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핸드폰을 이용해서 동영상을 본다는 것은 1년 전만 해도 볼 수 없는 모습이었다. 뿐만 아니라 빠른 정보교환에 익숙한 청소년들 그

들만의 세계를 기성세대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허다하다. 이러한 환경변화는 청소년들의 새로운 문화를 변화시키고 가치관을 바꾸기도 한다.

이미 우리의 일상적 삶속에서 과거의 전통이 우직우직 부서지고, 괴상망측하다고 생각했던 공상 내기 망상속의 사건이 몸으로 부딪히며 느끼는 체감적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것들 중에는 성전환, 동성애, 계약결혼, 자식을 가진 연상의 여자와 총각 남성의 결혼의 자연화, 채팅, 엽기스런 문화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전통적인 시각에서 보면 미친 사람이 아니면 괴짜가 하던 것들이 이제는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는 남자와 여자들까지도 얼굴하나 붉힐 필요없이 천연덕스럽게 할 수 있는 세상으로 변해 갔으며 앞으로도 더욱 그러한 방향으로 변할 것으로 기대된다(최상진, 2002).

이러한 변화 중에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거의 자연스러운 형태로 스며들어온 변화들을 전통적 형태와 비교해서 제시해 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청소년의 전통적 가치관과 현재의 의식구조 비교: 대비를 중심으로

구 분	전통적 의식구조	현재의 의식구조
I. 인성, 인격 및 자아 성장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람은 인격을 갖추어야 한다.</li> <li>- 사람에게서는 의지가 중요하다.</li> <li>- 이성적인 사람이 멋있어 보인다.</li> <li>-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li> <li>- 고통과 인내는 인간을 성장시킨다.</li> <li>- 사람은 신중하고 점잖아야 한다.</li> <li>- 하고싶은 행동도 상대가 싫어하면 억제한다.</li> <li>- 덕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한다.</li> <li>- 보통사람이 가장 정상이다.</li> <li>- 색깔이 없는 사람이 좋다.</li> <li>- 조화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한다.</li> <li>- 말을 조리있게 잘하는 사람이 존경스럽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람은 개성과 멋이 있어야 한다.</li> <li>- 사람에게서는 창의성이 중요하다.</li> <li>- 감성적이며 정열적인 사람이 멋있어 보인다.</li> <li>-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하고싶은 일을 하는 것이다.</li> <li>- 유연하고 융통성있는 사고가 인간을 성장시킨다.</li> <li>- 사람은 자신을 스스로없이 표현해야 한다.</li> <li>- 남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행동한다.</li> <li>- 개성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한다.</li> <li>- 보통사람은 정상이하이다.</li> <li>- 색깔이 있는 사람이 좋다.</li> <li>-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어한다.</li> <li>- 컴퓨터를 자유자재로 조작하는 사람이 존경스럽다.</li> </ul>
II. 사회생활 및 사고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옷을 입을 때 남의 시선을 의식한다.</li> <li>- 음식점을 가거나 쇼핑을 할 때 단골집을 선호한다.</li> <li>- 나 자신보다는 집단이나 사회를 우선한다.</li> <li>- 어른은 어른이기 때문에 존경한다.</li> <li>- 께짜는 고달프다.</li> <li>- 군대와 같은 집단생활은 성격을 단련시킨다.</li> <li>- 외국인을 만나면 주눅이 든다.</li> <li>- 사회생활에서 타인의 평가를 중시한다.</li> <li>- 인생은 무난하고 안전하게 살아야 좋다.</li> <li>- 크고 품위있는 집을 선호한다.</li> <li>- 낮은 외국에 나가는 것은 고생이다.</li> <li>- 절약은 미덕이다.</li> <li>- 무엇이든 내 것이어야 마음이 든든하다.</li> <li>-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하는 것이 사람이다.</li> <li>- 감성적인 생활보다는 철학적인 생활이 더욱 가치롭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의 시선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옷을 입는다.</li> <li>- 음식점을 가거나 쇼핑을 할 때 편리한 곳을 간다.</li> <li>- 집단이나 사회보다는 나 자신을 우선한다.</li> <li>- 어른이라는 이유로 존경하지는 않는다.</li> <li>- 께짜라고 고달프지는 않다.</li> <li>- 집단생활은 개인의 능력을 위축시킨다.</li> <li>- 외국인과 자연스럽게 만난다.</li> <li>- 타인보다 나 자신의 기호와 선호를 중시한다.</li> <li>- 안전보다 항상 새로움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li> <li>- 편리하고 일하기 좋은 집이 좋다.</li> <li>- 재미있는 대화가 가치롭다.</li> <li>- 외국에 나가는 것은 즐거움이다.</li> <li>- 나 자신에게 필요한 일에 돈을 쓴다.</li> <li>- 반드시 내 것이어야 한다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li> <li>- 하기 싫은 일은 안해도 좋다.</li> <li>- 형이상학적, 철학적 생활보다는 감성적 생활이 더욱 재미있다.</li> <li>- 고생자체는 안 할수록 좋다.</li> </ul>

표 2. 계속

구 분	전통적 의식구조	현재의 의식구조
II. 사회생활 및 사고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젊었을 때 고생은 가치롭다.</li> <li>- 외식은 낭비다.</li> <li>- 상업적 행동은 저질적인 것이다.</li> <li>- 미래는 예측될 수 있다.</li> <li>- 역사와 과거는 우리에게 교훈적이다.</li> <li>- 돈은 차근차근 모으는 것이다.</li> <li>- 돈은 고생한 만큼 버는 것이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식은 삶의 윤택유이다.</li> <li>- 상업적 행동은 필요한 것으로 수용한다.</li> <li>- 세상은 변하므로 예측은 불가능하다.</li> <li>- 현재와 미래의 생활은 역사와 무관하다.</li> <li>- 돈은 기회만 만들면 벌 수 있다.</li> <li>- 돈은 아이디어가 있어야 번다.</li> </ul>
III. 친구 및 인간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구없이 혼자사는 사람은 외롭다.</li> <li>- 비록 도움이 안되더라도 친구의 걱정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li> <li>- 친구가 잘못이 있으면 충고를 해주어야 한다.</li> <li>- 친구는 의리로 사귈다.</li> <li>- 편한 사람과 만나야 재미가 있다.</li> <li>- 우정은 지속되어야 가치가 있다.</li> <li>- 술은 서로 권하며 마셔야 한다.</li> <li>- 친구는 많이 갖는 것보다 깊게 사귀는 것이 중요하다.</li> <li>-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을 가려서 사귈다.</li> <li>- 나와 유사한 사람을 좋아한다.</li> <li>- 사람을 사귈 때 믿을 수 있는가를 보아야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구가 없다고 외롭지는 않다.</li> <li>- 도움이 되지 않는 친구 걱정은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이다.</li> <li>- 친구의 잘못은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처리할 문제이다.</li> <li>- 친구는 취미와 취향으로 사귈다.</li> <li>- 모르는 사람과도 재미있게 보낼 수 있다.</li> <li>- 우정은 반드시 지속될 필요는 없다.</li> <li>- 술은 자기주량에 따라 마시는 것이 좋다.</li> <li>- 친구는 폭 넓게 사귀어야 한다.</li> <li>- 필요한 사람을 사귀면 된다.</li> <li>- 나와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li> <li>- 사람을 사귈 때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를 보아야 한다.</li> </ul>
IV. 직장 및 직업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은 남에게 존경받는 직업이 좋다.</li> <li>- 직장을 옮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li> <li>- 직장을 택할 때는 품위를 중시해야 한다.</li> <li>- 직장생활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li> <li>- 한 사람은 한 직장에 속해야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이다.</li> <li>- 직장을 옮기는 일 자체는 문제가 안된다.</li> <li>- 직장을 택할 때 품위는 그리 중요치 않다.</li> <li>- 직장생활은 필요할 때만 하면 된다.</li> <li>-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직장에 속할 수 있다.</li> </ul>
V. 이성관계 및 결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혼자가 기혼자와 결혼하는 것은 수치이다.</li> <li>- 여성은 여성다워야 하고 남성은 남성다워야 한다.</li> <li>- 사랑에는 정신과 영혼이 깃들여 있어야 한다.</li> <li>- 연애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도덕이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혼여부는 결혼에 중요한 조건이 아니다.</li> <li>- 남자와 여자의 특성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li> <li>- 정신과 영혼이 깃들지 않은 사랑도 있다.</li> <li>- 연애와 결혼은 구분된다.</li> </ul>

표 2. 계속

구 분	전통적 의식구조	현재의 의식구조
VI. 성공 및 행복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능력이 있어도 때와 기회가 맞아야 성공한다.</li> <li>- 미래의 성공을 위하여 오늘의 행복은 희생할 수 있다.</li> <li>- 행복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구성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때와 기회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잡는 것이다.</li> <li>- 미래의 성공보다는 오늘의 행복이 중요하다.</li> <li>- 행복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즐거움이다.</li> </ul>
VII. 가족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상적인 사람이면 결혼하고 자식을 두어야 한다.</li> <li>- 듬직한 남편이 좋다.</li> <li>- 현모양처가 좋다.</li> <li>- 남자는 출근을 해야 한다.</li> <li>- 자식과 아버지간에 거리가 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신생활을 하는 사람도 정상이다.</li> <li>- 재미있는 남편이 좋다.</li> <li>- 툭툭튀는 부인이 좋다.</li> <li>- 남자라고 반드시 출근할 필요는 없다.</li> <li>- 자식과 아버지는 동료관계처럼 가깝다.</li> </ul>

### 사회-환경적 구조에서 본 청소년의 가치

어른들은 예나 지금이나 청소년에 대해 '미래를 짊어질 나라의 일꾼' 이라고 일컬어 왔으며, 그래서 청소년은 나라의 보배요, 미래의 희망이라는 주장과 논리는 진부할 정도로 자명한 상식(truism)으로 수용해왔다. 그러나 미래가 아닌 현재의 시점에서 청소년을 바라볼 때 청소년의 위치와 가치는 이와는 현격히 상치된다. 청소년은 미래를 준비한다는 명분아래 어떠한 부가가치 생산에 참여하지도 않으며, 현실적으로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무능력자이며 무기능자이다. 또한 청소년은 정치, 종교, 경제, 학술, 문화, 사회 등 어떠한 사회활동에 있어서도 책임있는 역할을 부여받거나 하고 있지 못하는 소외자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가정의 가사에 도움을 주는 노무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도 못된다. 이점에서 미래의 어른으로서의 오늘의 청소년이 갖는 청소년의 실질 가치는 현실적으로 나라의 보배와는 거리가 멀다.

다른 한편, 청소년이 어른들에게 가져다줄 수

있는 심리-정서적 가치를 보면 마찬가지로 부정적 측면이 긍정적 측면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어른의 입장에서 볼 때, 청소년은 어른들의 기대나 욕구를 좌절시키는 경우가 많으며, 청소년은 어른에 대해 아동과 같은 정서적인 만족도 주지 못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더구나, 청소년은 어른에 대한 암묵적인 감시활동을 하는 것으로 어른에 의해 지각되기도 하며, 때에 따라서는 어른의 잘못을 비판하는 준어른적 언행을 하기도 하여 어른을 당황하게 만들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원기왕성한 힘, 아름다운 얼굴과 몸은 어른들에게 선망과 동시에 심리적인 질투감을 유발하는 원천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특히 언론에서 요란스럽게 보도하는 청소년 비행이나 청소년 범죄 사건에 대한 기사들은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규범이나 미풍양속을 훼손하는 주역으로 느껴지게 만드는가 하면, 어른들의 삶을 위협하는 존재로까지 확대 해석하는 피해심리를 유발하기도 한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경험된 어른들의 청소년상과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가치 판단 경험은

어른들이 일상을 살면서 피부적으로 체험되는 것으로, 이러한 청소년 체험은 미래의 주역으로서의 청소년 상과 정면으로 상충된다. 여기서 '미래의 주역으로서의 청소년'이라는 말이 갖는 취약성을 먼저 분석해 보기로 한다. 우선 오늘의 청소년이 미래의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간의 흐름이라는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이 청소년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어른이 되고, 어른이 되어 중요한 일을 하게 되면 나라를 이끄는 미래의 주역이 된다는 시간적 흐름의 전제와 어른이 되어 큰 일을 한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미래의 주역이 된다는 논리가 개입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전제와 가정에 기초한 명제는 현실성과 체험성 면에서 취약점을 가지며, 따라서 경험에 근거한 신념이라기 보다는 관념의 성격을 강하게 갖는다. 그러므로 '청소년은 미래의 주역'이라는 명제는 사유를 통해 귀결된 관념으로, 그 기능 면에서 현실적으로 작동되는 신념과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념은 현실적인 체험을 통해서 얻어진 청소년에 대한 어른들의 부정적 신념을 압도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은 미래의 주역'이라는 명제가 미래에 오늘의 현실 형태로 실현되었을 때는 이미 청소년은 어른의 상태가 되었을 때이다. 즉 지금의 청소년이 미래의 주역이 되었을 때에는 이미 어른의 상태에 있게 된다. 이를 우리 사회의 청소년과 관련시켜 해석해 보면, 이들이 나라를 이끄는 주역이 될 때는 이미 이들은 청소년이 아닌 상태가 되고, 결과적으로 세대로 이어지는 청소년 연배 집단들은 특정 시기에 존재하는 청소년 집단의 반복적 이음이 된다. 여기서 도출되는 시사점은 청소년이라는 것이 숙명적으로 나라의 주역이 될 수 없음을 내재한 개념 규정이라는 것이다. 청소년의 개념 규정이 갖는 이러한 취약점은 청소년에 대한 기대나 희망

과는 별도로 실제의 삶 속에서 어른들의 눈에 비치는 부정적 청소년상을 재생산하는데 기여한다. 즉 청소년이라는 말이 갖는 사회적 기능속에는 이미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연속적인 성장이라는 개념이 빠진 채, 성숙된 어른이 되기 이전의 특정한 시기나 시점으로 고착시킨 정태적 개념으로 청소년을 파악하는 오류가 내재되어 있다.

### 결론: 오늘의 청소년을 어떻게 조망해야 할 것인가

우리 사회에서 어른의 청소년관은 가정에서의 자녀에 대한 부모의 자녀관과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구성되어왔다. 20세기 중반인 해방기까지만 하더라도 동네 어른들이 동네 아이들을 부모의 입장에서 훈시하는 장면을 익숙하게 접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자녀관 연장선상의 청소년관은 지금도 교육의 현장에서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대부분의 부모가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른들이 청소년들을 '학생'이라고 호칭하면서 청소년을 타이르는 경우를 보면, 그 속에는 부모의 입장에서 청소년을 지도한다는 부모의 자녀관이 타이르는 어른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함축과 말투를 손쉽게 발견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한국의 가정에서는 자녀의 잘잘못을 부모의 책임으로 부모 스스로 지각하며, 훌륭한 자녀로의 성장을 위한 제반 역할과 의무를 부모 스스로가 자처해서 행한다. 이러한 자녀관은 부자유친(父子有親)이나 부모-자녀 일체라는 전통적 유교 자녀관의 사회적 인습화를 통해 형성된 것으로, 이러한 전통은 아직도 우리나라 가족에 편재되어 있다(방희정, 2000; 이문원, 1979; 최상진, 2000, pp. 274-279).

이와는 달리, 서구에서는 부모로부터 독립된

존재로서의 자녀관을 자녀 양육에서의 기본적인 이데올로기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서구에서의 사회화 과정은 청소년들에게 1) 부모로부터 분리된, 2) 독립적이며 자율적인, 3) 그리고 독특한 존재로서, 자신의 존재 근거를 4) 주체적 자기의 구성을 통해 개인적 정체감을 확립하도록 (selfing) 청소년을 육성하는데 초점을 둔다(최상진, 2000, pp. 121-125; 최상진, 김기범, 1999; Choi & Kim, 2003; Markus & Kitayama, 1991; Triandis, 1995, p. 43-48). 이러한 서구 가정에서의 자녀관은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청소년관으로 연장되고 있다. 가정의 자녀관이 사회적 청소년관으로 연장될 때 서구의 경우에는 가정과 사회라는 두 시스템의 차이에서 비롯될 수 있는 연장의 모순이 크지 않으나, 한국 특히 오늘의 한국 사회에서 가정의 청소년관을 대입시킬 때 두 시스템의 차이에서 비롯될 수 있는 대입의 모순이 현실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서구의 경우를 보자.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서구의 자녀관과 서구에서의 자녀 양육 방식은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자녀관을 강조하기 보다는 일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본 태도와 사고 및 행위 양식을 함양시키는데 두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에서 요구되는 독립적이며 자율적인 개인이 되는 과정을 가정에서 미리 훈련하고 준비시키는데 강조점을 두고 있다. 환언하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가정에서 훈련시키는 것이 서구의 자녀 교육이다. 따라서, 가정의 자녀관은 그대로 사회의 청소년관으로 연장될 수 있고 동시에 자연스럽게 전이될 수 있다.

그러나, 부모-자녀 상호의존적이며 일체적인 한국의 가족주의적 자녀관이 이미 서구적 형태의 산업화, 자본주의화를 통해 개인주의가 보편적인 사회관계의 기본적 틀로 자리잡게 된 오늘

의 한국의 사회에서 적실성있는 청소년관으로 이식되어 자연스러운 사회체제로 정착되기에는 부적합성을 갖는다. 이미 한국 사회에는 전통 가정에서 기능성을 가져왔던 집단주의적 가족관계 문법이 더 이상 적실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정에서 통용된 자녀관을 사회 상황으로 확대 전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는다. 사회적 상황에서 청소년 자신과 무관한 어른이 청소년의 잘못된 행동을 들어 부모의 입장에서 혼시하거나 충고할 때 청소년들이 이를 부당한 간섭이나 부적절한 행동으로 거부하는 사례가 일반 사회에서는 물론 교육의 장면에서도 거부되는 경우를 우리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또는 직접적 목격을 통해서 자주 접하게 된다. 여기서 한국의 어른들은 심리적 당혹감은 물론 황당함까지 경험하며, 최근에는 아예 남의 집 아이, 즉 청소년에 대해 관심을 끊어버리는 현상이 보편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부추기는 배경에는 어른의 권위 약화와 청소년의 효능감을 증진시키는 사회-문화적 변동이 일조를 하고 있다. 우선, 어른의 권위 약화 문제를 보자. 보통 어른의 권위는 부모의 권위에서 출발한다. 오늘날 부모의 권위가 과거에 비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현격히 추락했다는 사실은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적 연구를 통해 거의 상식화되었을 정도로 잘 알려져 있다(김경희, 1990; 방희정, 2000; 최상진 외, 2000). 전통 사회의 구조는 어른의 권위를 형성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많이 갖추고 있었다. 대가족 제도는 질서를 중심으로 한 제도로 어른의 권위를 중심으로 운용되며, 생업이 농사인 전통 사회에서 어른들은 숙련된 전문인으로 인정받았으며, 관혼상제와 같은 가정 및 동네의 의례는 어른의 주도하에 어른 중심으로 전수되는 지식과 관례에 의해 집행되었으며, 이

러한 어른의 기능은 어른의 권위를 보증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서는 이러한 어른의 권위를 밑에서부터 부식시키는 문명-문화적 변동과 이와 동반해서 나타나는 사회 변동이 급속한 속도로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텔레비전을 비롯한 미디어의 발달은 서구인의 생활 문화와 서구 청소년의 생활양식을 우리의 안방에서 청소년들이 직접 실물 그대로 접할 수 있게 만들고 있다. 또한 미디어에 출현하는 출연자들은 청소년 자신의 아버지와의 사회 비교 대상인들로, 이러한 사회 비교를 통해 청소년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보통의 어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특히, 엔터테인먼트에서 수월적 기능을 갖는 TV에는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문화와 기능을 뽐내는 프로그램들이 넘쳐 흐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더 이상 사회의 아웃사이드가 아닌 인사이더로서의 정체성을 스스로 체험하게 되고 자신들의 집단 아이덴티티를 구성하기도 한다(우석봉, 2000). 컴퓨터와 인터넷의 보편화는 새로운 문명에 익숙하지 않은 어른들에게 열등감을 가져다주었으며, 상대적으로 청소년들에게는 어른에 대해 비교우위적 효능감을 심어주는데 기여하고 있다. 최근 들어 '바뀌, 바뀌'라는 말이 청소년들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상은 곧 자신들이 새 문화, 미래 문화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청소년의 자아 효능감의 표현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제 청소년들은 더 이상 어른의 복사판이 되는 것을 거부한다. 그들은 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따른 사회 변화의 주체적 선도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다. 이제 어른 스스로도 이러한 문명-문화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자기 변신을 강요받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에게 자신들의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을 요구하는 것은 이들에

게 공허한 외침일 수밖에 없다. 청소년들은 이미 어른들의 가치관과는 크게 다른 자신들의 가치관을 개인적 수준의 차원을 넘어 문화적 자기정체의 형태로 구성해 나가고 있다(안귀덕, 김경성, 김광웅, 황정규, 1998; 최상진, 1996).

이러한 대(對) 기성사회적, 대(對) 성인적, 자기정체 확인적 청소년 문화는 어른을 배제시키거나 기존의 기성 문화를 해체시키는 방향으로 경도되었다는 점에서 세대간 갈등과 문화의 단절을 초래할 위험성을 내포하기도 한다(김명인, 김의철, 박영신, 2000). 어느 사회이건 또는 어느 문화이건 그 사회와 문제가 그렇게 존속하고 그렇게 발달해오게 된 배경에는 그 나름대로의 정당성과 가치가 그 속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시대가 변하고 세계 문명의 체제와 문법이 패러다임적으로 변동하는 세계 또는 사회 속에서 기존의 사고 방식과 문화적 생활 방식에 고착하여 변화와 변동을 거부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적응과 퇴보의 길을 택하는 것이다. 변할 것은 변하고,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발전적 문화변동의 길이라면, 이제 어른과 청소년은 나이라는 허울을 벗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너는 누구이며, 나는 무엇인가'를 먼저 확인하고 우리들이 함께 살아갈 21세기의 한국을 함께 그리고 진지하게 토론해야 한다.

## 참고문헌

- 곽금주, 김의철, 박영신 (1998). 한국청소년 문화의 형성요인 탐색: 비행과 우울에 관하여.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787-795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9). 사회변동기에 있어서의 전통문화와 청년문화. 서울: 고대 민족 문화연구소.

- 김옥순, 김형주, 손의숙, 심한기 (2003). 청소년 참여와 권익증진 제도화 방안조사 연구- 대통령 청소년 특별회의의 구성·운영을 중심으로. 청소년 연구 포럼. 서울: 한국청소년 단체협의회.
- 김경희 (1990). 아동의 부모권위개념 발달에 관한 연구: Damon의 권위 개념 단계에 따른 분석. 아동학회지, 11(1), 15-28.
- 김명언, 김의철, 박영신 (2000). 청소년과 성인간의 세대차이와 유사성.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1), 181-204.
- 문화일보, 2003년, 11월 7일자, '대안학교' 박람회 열린다.
- 방희정 (2000). 한국 사회에서의 부모자녀관계 특성에 대한 발달심리학적 탐색. 한국심리학회 사회문제학회 추계심포지엄, 35-58.
- 아동권리협약 (The Convention of Right of Child, 1989)
- 안귀덕, 김경성, 김광웅, 황정규 (1998). 한국청소년문화: 변화와 연속.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우석봉 (2000). N세대의 디지털화, 가치관, 소비행동. 한국 소비자·광고심리학회 심포지엄, 1-20.
- 이문원 (1979). 한국유교의 아동교육론. 교육사교육철학, 3호, 5-18.
- 이춘재 외 (1988). 청년심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정옥분 (1998). 청년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조영승 (1997) 청소년학 총론. 서울: 교육과학사.
- 최상진 (1996). 2020년, 청소년의 문화: 가치관. 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 개소기념 심포지엄, 83-107.
- 최상진 (1999). 21세기 청소년의 자화상. 서울 청소년상담연구, 1(창간호), 2-20.
- 최상진 (2000). 한국인 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출판부.
- 최상진 (2002). 변화하는 현대사회와 아동관 재해석: 한국인에게 아이란 무엇일까? 한국어린이 육영회 유아교육 학술대회기조강연, 2-19.
- 최상진 (2003). 한국문화에서 청소년이란 무엇인가.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학술발표 논문집, 199-200.
- 최상진, 김기범 (1999). 한국인의 self의 특성: 서구의 self 개념과 대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279-295.
- 최상진, 김의철, 홍성윤, 박영숙, 유승엽 (2000). 권위에 관한 한국인의 의식체계: 권위, 권위주의와 체면의 구조에 대한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1), 69-84.
- 최상진, 한규석 (1998). 심리학에서의 객관성, 보편성 및 사회성의 오류: 문화심리학의 도전.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7(1), 73-96.
- 함중훈 (1992). 청소년학 원론.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Choi, S. C., & Kim, K. (2003). A conceptual exploration of the Korean self in comparison with the Western self. In K. S. Yang, K. K. Hwang, P. Pedersen, & I. Diabo (Eds.), *Progress in Asian social psycholog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tributions*(pp. 29-42). Westport, CT: Praeger.
- Durkin, K. (1995). *Developmental social psychology: From infancy to old age*. Blackwell.
- Dusek, J. B. (1987). *Adolescent development and behavior*. Prentice-Hall International, Inc.
- Leontiev, A. N. (1981). The problem of activity in psychology. In J. V. Wertch (Ed.), *The concept of activity in Soviet psychology* (pp. 37-71). NY: Sharpe.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Ratner, C. (1997). Activity as a key concept for cultural psychology. available <http://sorrel.humboldt.edu/~cr2/jaan.htm>
- Ratner, C. (1997). *Cultural psychology and qualitative methodology: Theoretical and empirical considerations*. NY: Plenum.
- Triandis, H. C. (199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Boulder: Westview Press.
- Vygotsky, L. S. (1978). *Mind in society: The Development of higher psychological process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Wertsch, J. (1985). *Vygotsky and the social formation of mind*. CA: Harvard University Press.

1 차원고접수일 : 2003. 8. 21

최종원고접수일 : 2003. 11. 14

## What is Adolescent in Korean Culture?

Sang-Chin Choi      Yangha Kim      In-Sook Hwang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The present paper tried to review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adolescent in Korean culture. We suggested the starting point for study of adolescent should be on the definition of adolescent, i.e., what is adolescent. In order to do it, we reviewed the perspective of the old generation, especially negative one, and myth and psychologism of developmental psychology on adolescent. Accordingly, we'd like to suggest an alternative approach on adolescent in psychology. That is called activity-environmental focused approach for studying adolescent. We also argued the value of adolescent in modern society and suggested how to view and approach the adolescent in psychology.

*key words* : adolescent, Korean culture, developmental psychology, psychologism, activity-environmental focused approach